

C7006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위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위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 명칭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D911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종류형	최초설정일	2016.05.02
운용기간	2020.04.01 ~ 2020.06.30	존속기간	추경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채권 혹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채권투자에 있어 국공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원,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베스트국공채 재간접형	자산 총액 (A)	12,464	12,560	0.77
	부채 총액 (B)	4	4	0.63
	순자산총액 (C=A-B)	12,460	12,556	0.77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11,810	11,794	-0.13
	기준가격주 (E=C/D×1000)	1,055.10	1,064.66	0.91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2분기 국내 채권 시장은 경제 재개로 인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한국 은행의 완화 기조와 수출과 내수 등 전반적인 경기지표의 부진으로 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였고, 특히 단기물 위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은 초반에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일시적으로 안정되고 이후 경제 재개로 인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며 약세를 보였지만, 경기 지표의 개선세가 시장의 기대를 하회하고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만큼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홍콩보안법과 무역 협상에 관한 미중간 긴장이 높아져 금리 상단은 제한되었습니다. 1분기 연환산 GDP는 전분기 대비 5% 하락하여 작년 4분기 수치인 2.1%보다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비농업 취업자 수는 3월에 전월 대비 137.3만명 감소하고 4월에 2,068.7만명 감소하였지만 5월에는 250.9만명 증가하여 고용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분기 말 위험 자산 선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분기 초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었던 소비, 부동산 지표, 제조업 지표 등이 분기말에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0~0.25%로 동결하면서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될 때까지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고, 올해 경제 성장률은 -6.5%로 내년 경제 성장률은 5%로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현재의 저금리기조를 2022년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전망했고, SMCCF(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를 통해 유동시장에서 회사채를 매입하는 등 시장 안정노력에 나서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은 경제 재개로 인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완화 정책으로 저금리 환경이 조성되고 수출과 내수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인한 경제 우려로 강세를 유지하였는데 장기물에 비해 단기물의 금리 하락폭이 두드러지면서 3/10년 스프레드가 소폭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지표의 부진이 2분기 두드러졌는데, 1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 1.3% 하락하였고, 전산업생산도 3월에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하였으나, 4월에는 5.3% 감소하고, 5월에는 5.6% 감소하는 등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수출도 4월 전년 동월 대비 25.5% 감소하였고, 5월에는 23.6%, 6월에는 10.9% 하락하여 감소세가 유지되며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전분기에 이어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은 금리를 25bp 인하하여 0.5%로 결정하였고, 올해 경제 성장률을 -0.2%로 전망하여 2월 전망치인 2.1%에서 대폭 하향 조정하여 금리 하락 요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수급 불균형이 있다고 판단될 때 유동 시장에서 국공채 매입이 나서겠다고 했지만 그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이러한 미온적 태도는 금리 하락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전분기 1차 추경에 이어 12.2조 규모의 2차 추경과 35.3조원 규모의 3차 추경으로 수요를 창출하여 경기를 보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면서 향후 수급부담에 대한 우려를 키우며 금리를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분기 중 동안 1년은 35.2bp 하락한 0.651%에, 동안 2년은 27.2bp 하락한 0.795%에, 국고 3년은 22.5bp 하락한 0.845%에, 국고 5년은 18.2p 하락한 1.115%에, 국고 10년은 16.7bp 하락한 1.385%에, 국고 20년은 8.2p 하락한 1.585%에, 국고 30년은 6.5bp 하락한 1.602%에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3분기 국내 채권 금리의 방향은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이 크게 변화가 없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완화와 저물가 기조 지속 및 한국은행의 수급개선과 관련한 추가조치를 기다리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여전히 금리의 상단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35.3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발표하였지만 세율 조정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작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수급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또한 대외 요인으로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가결하고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면서 미중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도 채권 가격을 지지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 경제재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약화는 금리의 하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은행과 주요 선진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한은의 수급 안정과 관련한 정책 기대감에 따른 채권시장의 변동성 감소에 대한 기대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BM레벨보다 소폭 높은 듀레이션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대내외 거시경제여건 및 주요 통화정책 당국의 정책 스탠스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유 현물을 활용해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듀레이션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0.91	1.54	1.26	1.94
(비교지수 대비 성과)	(-0.34)	(-0.64)	(-0.83)	(-1.00)
비교지수(벤치마크)	1.25	2.18	2.09	2.94

※ 비교지수(벤치마크): KIS국공채10년이하 X 95% + CALL지수 X 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1.94	5.59	6.08	-
(비교지수 대비 성과)	(-1.00)	(-2.44)	(-3.19)	-
비교지수(벤치마크)	2.94	8.03	9.27	-

※ 비교지수(벤치마크): KIS국공채10년이하 X 95% + CALL지수 X 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만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전기	0	0	0	97	0	0	0	0	2	-13	85
당기	0	0	0	123	0	0	0	0	1	-12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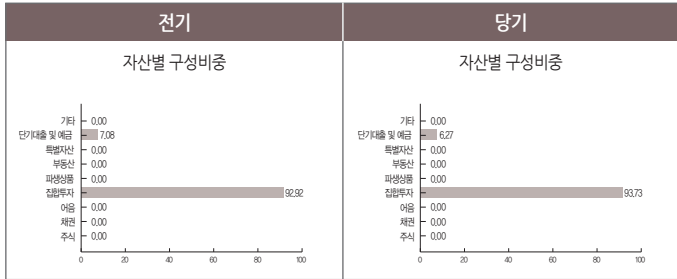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1.00)	0 (0.00)	0 (0.00)	0 (0.00)	11,772 (93.73)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788 (6.27)	0 (0.00)	12,560 (100.00)
합계	0	0	0	11,772	0	0	0	0	0	788	0	12,560

※ (): 구성비중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프랭클린베스트국공채(채권)CF	93.73	6		
2	단기상품 연대(우리은행)	6.27	7		
3			8		
4			9		
5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자산운용사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프랭클린베스트국공채(채권)CF	채권형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11,759	11,772	대한민국	KRW	93.73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우리은행	2016-05-02	788	0.23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사장	41	78	2,459,419	-	-	2119000125
김태현	과장	37	78	2,459,419	-	-	2119000109
최명혁	사원	28	78	2,459,419	-	-	2119000110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19.01.24 ~ 현재	최명혁
2018.05.29 ~ 2019.12.06	차인식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0	0	0.00
판매회사	12	0.09	11	0.09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1	0.00	0	0.00
보수합계	13	0.10	12	0.10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수수료	0	0	0.00
	합계	0	0	0.00
증권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3894	0	0.3894
당기	0.3894	0	0.3894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